

자녀를 위한 무릎 기도문

믿음이 성장하는 자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그렇지 아니한 아이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신감에 차 있으며, 동기가 잘 개발되어 있으며, 행복해 하며, 미래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이며, 자신을 남에게 잘 줍니다.

먼저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11:6)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마17:20)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 11:24)

다음 페이지의 기도문을 읽으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주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믿음의 분량이 있다"(롬12:3)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00(아이의 이름)에게 심어주시는 그 믿음이 자라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00(이)속에 확고히 자리를 잡아 믿음이 일취월장 성장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이 00(이)의 삶을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00(이)의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히11:1)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00(이)의 믿음을 강하게 하사 자기가 처한 상황과 한계를 극복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생의 다른 모든 것들보다, 심지어 부모로서의 저의 영향력보다도 더 우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될 때에도, 00(이) 믿음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쓸"(고전 15:58)만큼 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00(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남에게 베푸는 것이 실재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임을 00(이)가 깨닫게 하옵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앓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딤후1:12)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상달 칼럼



두상달 장로
가정목회원 이사장

부부가 찰떡궁합으로 딱딱 맞는 부부는 지구상에 없다. 달라서 살 수 없다고 아우성이다.

부부는 영원히 모를 손님(eternal stranger)이라고 한다.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한다.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도 한다. 같이 살면서도 다른 것이 부부다. 부부라고 딱딱 들어맞을 수는 없다. 행복해야 할 부부들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갈등을 하고 평생 싸운다. 사랑하면서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간다.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부부는 무엇으로 싸우나 우

리는 시시한 것, 지극히 사소한 일로 부부싸움을 한다. 남북통일과 인류평화를 위해서는 결코 싸워 본 일이 없다. 때때로 우리 부부는 냉·난방조절 문제로 부딪친다. 더운 여름에 차를 타면 나는 에어컨을 켜야 한다. 그런데 아내는 에어컨을 끄라고 성화다. 찬 바람 나오는 구멍을 모조리 막아버린다. 아내는 찬바람이나 선풍기 바람은 질색이다. 그런데 나는 더위를 못 참아 식당가서도 일부러 찬 바람 나오는 자리 앞에

앉는다.

잠자는 것도 다르다. 나는 강촌 출신이라 일찍 일어나는 편이다. 소위 새벽형이요 종달새형이다. 그런데 내 아내는 서울 출신으로 늦게 일어나는 올빼미형이다. 신혼 초 그것 때문에 부딪혔다. 밤이 깊었는데도 전혀 잘 생각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때부터 일을 시작한다.

"밤 10시인데 자자. 빨리 자자."

내가 조르면 아내는 먼저 자라고 한다. 한참 자야 할 시간인 밤 10시 그때, 눈동자가 반짝거리고 생기도는 여자가 내 아내다. 나는 밤 10

시가 되면 눈동자가 반쯤 풀려 비몽사몽 제정신이 아니다. 또 나는 누웠다 하면 3분 내에 잠이 든다. 그런데 내 아내는 잠자리에 들어서도 만리장성같이 없다. 온갖 상념을 다 한다. 별별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앞에서 해댄다. 그러다가 "잠들었어?"라며 겨우 잠든 나를 툭 친다. 그러나 야행성 아내랑 사는 나는 자는 것까지도 고달프고 힘들다.

결혼 전 내 아내는 나의 결단력과 과단성 등이 좋아보였다고 한다. 그

아가야 한다. 아내는 지금도 뒤끝 없는 사람이 가장 싫다고 한다.

서로 다른 것은 축복이다.

부부는 삶을 맞대고 살아가면서도 생각과 감정을 달리한다. 사랑과 미움의 경계선을 오가며 서로 다른 정서와 감정을 나누며 살아간다. 다른 것은 개성이고 차이이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성을 누릴 수 있다. 이질적 만남은 축복이다. 그런데 그 다른 것 때문에 부딪히고 영기기도 한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살아

달라서 살 수 없다고

런데 같이 살고 보니 그게 아니다. 어쩌다 말다툼이라도 하게 되면 나는 성깔대로 해대고 "나는 끝"하고 잠들어 버린다. 나는 성깔은 있으나 뒤끝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 아내는 그때부터 시작이다. 끓이고 삭히고 혼자 끄공 앓는다.

"이 인간! 속 쫓게 굶아 떨어져. 뭐 뒤끝이 없다고?"

자기중심적인 것이 갈등의 밑미가 된다. 뒤끝이 없다는 것은 뒤끝 없는 사람의 이야기일 뿐이다. 상대는 그 뒤끝 없는 것의 앙금을 안고 살

려야만 반드시 아픔이 있다.

사랑한다고 갈등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갈등한다고 사랑이 없는 것도 아니다. 싸움과 갈등 그것은 결혼 생활에서 거처야 할 과정이다. 싸우고 부딪치면 정든다. 정이란 갈등과 상처를 사랑으로 녹여내는 감성이다.

인간은 유사점을 바탕으로 친밀감을 느끼고 관계를 맺는다. 그러나 사회는 차이점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발전한다. 부부도 마찬가지이다. 부부가 서로 달라서 합동하고 살 수 없다고... 찰떡궁합으로 알고 살아라.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내의 기도로 남편은 돕는다

남편의 걸음

주님,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도다."(욥10:23) 그러므로 주께 간구하오니, 남편의 걸음을 지도해 주옵소서. 그를 주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그에게 가르치소서. 그리하여 주의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보다 깊이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더욱 갈급하게 하소서. 주의 임재를 그 무엇보다 갈망하게 하옵소서. 그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에서 벗어날 때면 속히 돌이키게 하옵소서. 주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숨겨진 죄악들을 그에게 드러내 주옵소서. 주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에는 철저히 회개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짐막에 유할 자 누구으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시15:1~2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산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시51:10~11

그러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욕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케 하자.
고후7:1

남편의 걸음

주님, 남편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를 주의 존전에서 물리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그에게 거두지 마옵소서. 시51:10~11

주님 육신 가운데 거하는 자는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롬8:8 그러므로 남편이 육신 가운데 거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행함으로써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시17:4 안도록 그를 지켜 주옵소서.

바로움기는, 성령 안에서 행함으로 사랑, 화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은유, 절제 등과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갈 5:22~23 일생토록 기록한 대로로 매진케 하옵소서.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재물을 가중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피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건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이지 아니하리니 하였느니라.
시33:15~16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롬8:8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갈렷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검소와 은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엡4:1~2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2026학년도 총회신학 신·편입생 모집

본 총회신학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인준 정통 보수주의 신학연구원입니다. 최고도적 개혁주의 보수신학의 요람으로서 신학과정을 이수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강의를 중심으로 말씀의 기초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여러분의 사역에 성실한 길잡이가 되도록 본 총회신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전화
062)511-2491
010-3161-2491
http://www.gchongsin.com

총장 신혜란 목사

원서교부 및 접수처

원서교부 : 광주, 전주, 순천 총회신학
원서접수 : 수시 접수
*전형료는 없음

총회신학의 장점

최고의 교수진이 있습니다.
남·여 목사안수 / 각종 장학혜택
교회개혁 및 설립인허, 법인등록 등
각종 행정자원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과정

- 1. 시간, 지역,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석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사망자는 통신으로 전과정을 이수하고 목사고시를 거쳐 안수 받을 수 있습니다.
- 2. 능력별로 이수하므로 조기에 졸업할 수 있습니다.

365일 언제나 입학가능! 실패, 학비, 나이 학력 모든 걱정 내려놓으시고 오세요!

입학문의

광주 062)511-2491
전주 063)272-2491
순천 061)751-2491
수양관(곡성) 061)362-2491